

동성애와 문화

-제 5회: 동성애와 K-POP-

K-POP



I. 들어가며

지난 3회와 4회를 통해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등 국내의 대표적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관련 콘텐츠를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문화예술계가 동성애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파급효과로 많은 예술인과 문화 수용자들이 동성애 문화를 점차 자연스럽게 것으로 받아들여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5회에서는, 세계 속 한류를 주도해가고 있는 'K-Pop(한국 대중음악)'을 통해 퍼져가는 동성애 문화의 실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이를 끝으로 지난 3회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 문화예술 전반에 나

타난 동성애 콘텐츠의 현황과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회차인 다음 6회에서는, 이 같은 동성애 관련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심도있게 파헤쳐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는 시사하는 바를 함께 논하여 보고자 한다.

II.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 동성애 노래

지난 수년 간 많은 세계적인 가수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노래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이 같은 노래들이 팝음악 애청자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한경훈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LA)에서 상업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KBS에서 다수 프로그램 음악감독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방송음악가로도 활동 중이다.



LADY GAGA

지면 관계상 가장 대표적인 인기를 얻은 두 곡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하겠다. 동성애를 주제로 다룬 이 두 노래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대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

★ 레이디 가가

(Lady Gaga)의 <Born This Way>

<Born This Way(이대로 태어났어)>는 LGBT(성소수자들)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노래로서 2011년 5월 발매된 이래 최단기간인 5일 만에 백만 카피가 판매되었고, 이로써 기네스북에 ‘아이튠즈(iTunes)에서 가장 빨리 팔린 싱글음반(Fastest-selling Single)’으로 기록된 곡이다. 2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역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820만 카피를 판매하여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No matter gay, straight or bi”
(게이, 이성애자, 양성애자건 상관없어)

“Lesbian, transgendered life”
(레즈비언이건, 트랜스젠더건)

“I’m on the right track, baby”
(난 제대로 가고 있어)

“I was born to survive”
(살아남으려 태어난 거니까)

“A different lover is not a sin”
(다른 종류의 애인은 죄가 아냐)

“I was born this way”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Don’t be a drag, just be a queen”
(여장말고, 여왕이 되어봐)

“Don’t hide yourself in regret”
(후회 속에 숨으려 하지마)

“Just love yourself and you’re set”
(스스로를 사랑해, 그거 하나면 돼)

“Ooh, there ain’t no other way”
(오, 다른 방법은 없어)

“Same DNA, but born this way”
(같은 유전자, 그러나 이렇게 태어났을 뿐)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피라미드를 연상시키는 ‘삼각형 틀’ 안에 ‘빨 달린 유니콘’의 실루엣으로 시작된다. 이 ‘삼각형’은 두 개의 반대쪽 머리를 가진 가가의 장면으로 전환되는데, 별이 가득한 공간 속에 장식된 유리 왕좌에 앉아 있다. 가가는 왕좌에 앉아 출산하는 자세로 양다리를 넓게 벌리고 ‘새로운 인종’을 낳는다. 그녀는 자신 내면에 선과 악의 두 반대 세력이 갈라져있는데 이 ‘새로운 인종’을 악의 탄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 안의 남은 반쪽, 즉 선의 탄생은 ‘기관총’으로 태어나서 난사되어 진다. 뮤직비디오의 서막은 가가의 질문으로 끝을 맺는다. “악이 없이 뭔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How can I protect something so perfect, without evil?...” 이 뮤직비디오는 2011년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성 비디오(Best Female Video)’와 ‘메시지가 담긴 최우수 비디오 (Best Video with Message)’ 부문에서 2개의 상을 수상했다. ‘MTV Europe 뮤직 어워드’에서도 ‘최우수 비디오상’을 수상했다.

이 곡의 여러 수상경력과 함께 큰 영향력을 얻게 된 그녀는 동성애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6일 레이디 가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그녀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외국의 동성애자 인권

증진에도 외교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레이디가가는 그 다음 해, 2012년 한국 콘서트에서 무대 위 동성간 성행위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논란을 낳았는데 언더웨어 하나만 입은 많은 남성들이 무대 위에서 난교행위를 하는 퍼포먼스였다. 가가는 전 세계를 드나들며 동성애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 속에서도 같은 해 10월 동성애자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레닌 오노 평화상’을 수상했다.

★ 호지어(Hozier)의

<Take Me to Church>

<Take Me to Church(나를 교회에 데려가줘)> 또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노래인데,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기독교를 향한 역설적인 조롱이 주된 가사를 이루고 있다. 2013년 9월 싱글앨범으로 발매된 이 노래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12개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하였고, 21개 나라에서 톱 10위 내에 랭크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Spotify의 ‘Hot Rock Songs 차트’ 상위권에 23주 연속 랭크되었으며, 가장 긴 시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곡이기도 하다. 또한 제 57회 그래미상 ‘올해의 노래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영향력 있는 곡이다.

이 곡의 가사를 살펴보면,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

“Every Sunday’s getting more bleak”
 (매주 일요일은 더 암울해지고 있어)
 “A fresh poison each week”
 (매주 주어지는 신선한 독)
 “We were born sick”
 (“우리는 원래 병들어 태어났어”)
 “You heard them say it”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걸 너희는 들었지)
 “My church offers no absolutions”
 (우리 교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She tells me worship in the bedroom”
 (그녀는 나에게 “침대에서나 경배해”라고 말한다)
 “The only heaven I’ll be sent to”
 (나를 천국으로 이끌 유일한 곳)
 “Is when I’m alone with you”
 (너와 단둘이 있을 때만 그곳에 갈 수 있어)
 “I was born sick, but I love it”
 (나는 병들어 태어났지만,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Amen, Amen, Amen”
 (아멘, 아멘, 아멘)
 “Take me to church”
 (나를 교회에 데려가줘)
 “I’ll worship like a dog at the shrine of your lies”
 (너네들 거짓말의 예배당에서 개처럼 경배할게)
 “I’ll tell you my sins and you can
 sharpen your knife”
 (내 죄들을 고백하면 그 사이에 칼을 갈고 있겠지)
 “Offer me that deathless death”
 (죽지 않는다는 그 죽음을 나에게 줘봐)
 “Good God, let me give you my life”
 (좋은 하나님?, 너에게 내 생명을 줄게)

이렇듯 기독교와 신을 조롱하면서 차라리 성관계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명 여배우가 출연하는 화장품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여 더욱 유명해졌고 2018년에는 영국 ‘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0곡’에 선정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 곡은 가수가 되기 위해 국내 실용음악 대학에 지망하는 많은 고교 입시생의 애창곡이기도 하다. 해마다 보컬전공 입시를 치르면 수백 곡의 노래를 심사하게 되는데, 매번 몇 명씩은 이 곡을 입시곡으로 선택하는 것을 본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한 곡을 수 천 번씩 부르고 연습하는 것을 생각하면 청소년으로써 이 곡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혹은 자신의 노랫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에 스스로 충분한 동의를 하고 부르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함이 생긴다.



III. 동성애 소재를 다룬 국내 대중가요(K-Pop) 및 가수 현황

1. 대표적 동성애 소재 대중가요(K-Pop)

발매년도	가수/제목 및 개요
2002	- 신비 < To my Friend > 가사 내용에 동성애를 내포. “너를 처음 본 순간 운명처럼 너에게 이끌려, 같은 여자인 너를 두렵 속에 난 좋아하는데, You're my first love, 너 느낄 수 있니, Tell me your heart, 너는 감출 수 없는걸, 이제는 너에게 고백할게, Love is no crime, 흘린 눈물 만큼 너를 사랑해, 너의 하루 안에 머물게...”
2005	-레이디(Lady) <Attention> 트랜스젠더 네 명으로 구성된 그룹. 가사에서 성전환을 한 여성을 대하는 남성들에 대한 내용을 다룸.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나를 바꿀 순 있어, Never regret never regret, 언젠가는 모두 떠나갈지라도, Hey let me out hey let me out, 솔직해지게 내가 너라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 나를 욕할 필요 없잖아, 내게 신경을 꺼, 사귄 것도 아니었잖아,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내게 신경을 써, 이 노래가 맘에 든다면, 그럼 이제 나와 춤을 춰”
2009	-브라운아이드걸스 <Abracadabra> 이성애자인 여성이 남성과 키스를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Love'라고 쓰인 핑크색 알약을 먹고 여성과 키스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스토리를 가진 양성애적(bisexual) 요소의 뮤직비디오
2010	-막강 <욕 먹을 사랑 (feat.피말라지예) > 가사내용에 동성애 내포. “아마 출발부터 뭔가가 잘못됐었나봐, 여자와 여자 납득시킬 수 없는 문제, 그러나 달빛 하얏던 그날 밤 모든 걸 각오했던 그곳의 너와 난, 언제나 함께 라고 맹세했었는데..., 무수히도 받아왔던 손가락질, 더 많이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2012	-K.Will(케이윌) <이러지마 제발(Please Don't)>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향한 또 다른 남자의 짝사랑을 그린 뮤직비디오로 남성 동성애를 소재로 다룸. -Baby Soul, 유지아 <그녀는 바람둥이야 (She is a flirt) > 여성 간 사랑의 감정을 담은 뮤직비디오.
2014	-레드벨벳 <행복(Happiness)> 가사내용으로 인해 동성애 논란이 있음. “달라 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으면 그냥 하고 말지, 고민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도 행복을 찾는 나의 모험일기, 달라 달라 나는 좀, 긍정의 힘을 나는 믿지, 점점 더 좋은 걸, 난 나라서 행복해, 해보고 싶으면 그냥 하자.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험을 마다하지 않겠다. 나는 달라. 나는 나라서 행복하다.” -송지은 <쳐다보지마> 2014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 “송지은, 신곡 <쳐다보지마>서 동성애 등 파격 가사 다룬다” “왜 그래 왜 안돼, 잘못된 게 우린 하나 없는데, 왜 그래 왜 안돼, 죽을 만큼 그토록 사랑하는데 쳐다보지마 그런 눈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뿐이야 우린, 욕하지 좀 마 보이는 대로, 조금 다를 뿐이야 뿐이야 우린, 그냥 내버려둬”

<p>2015</p>	<p>-레드벨벳 <세 가지 소원> 두 여성간의 사랑 이야기를 아름다운 영상미로 그려 직접적인 동성애를 담고 있는 뮤직비디오 -ANDA(안다) <Touch> 다수 여성들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 여성간의 사랑을 경쾌한 리듬에 맞춰 선정적으로 표현해낸 레즈비언 소재 뮤직비디오 -Planet Shiver(플래닛쉬버) <Rainbow (feat. Crush)> 남성간 사랑을 묘사함. 동성애적 요소를 담은 뮤직비디오 -BESTie(베스티) <Excuse Me> 동성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뮤직비디오 -마마무(MAMAMOO) <음오아예(Um Oh Ah Yeh)> 레즈비언 요소를 담고 있는 뮤직비디오.</p>
<p>2016</p>	<p>-씨스타, Giorgio Moroder <One More Day> 여성간 키스와 애정행위를 담은 레즈비언 요소의 뮤직비디오. 특히 여주인공이 남성과 교제 중인 다른 여성을 빼앗는 내용으로, 서로 사랑한 이후 남성을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몬스타엑스(MONSTA X) <걸어(ALL IN)> 게이적인 요소와 함께 주술행위를 묘사하는 뮤직비디오.</p>
<p>2017</p>	<p>-Holland(홀랜드) <Neverland(네버랜드)> 남성 간 키스신, 애정행위 장면 등 남성간의 사랑을 아름다운 영상효과로 표현하고 있는 동성애 소재 뮤직비디오 "Too Many Eyes I don't give up Fuck it, 나도 몰라 뭘 원하는 건지, When I Was Young 애써 설득하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해, 내가 이상한 건지 누가 이상한 건지, 모든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닐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을 듣기 싫어도 반복했던 그 말들 안들어도 돼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아, 내 손을 잡아 주겠니 창밖으로 나가, 무지개를 찾아서, FLY I Could Be Your Love, But Never Mind I'm Neverland" -10cm <HELP> 여러 가지 동성애적 장면을 묘사한 뮤직비디오 -THE BOYZ(더보이즈) <Boy(소년)> 남성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게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p>
<p>2018</p>	<p>-레드벨벳 <Bad Boy> 뮤직비디오에서 여성 간 키스신이 나오고, 베드신을 연상시키는 여러 비주얼들과 여성간의 사랑, 질투 등을 담은 스토리 전개. -자우림(Jaurim) <있지> 뮤직비디오에 여성간의 키스신이 수차례 담김. 두 여성의 사랑을 그린 스토리. -Tenny(테니) <159cm> 뮤직비디오 시작부분에 뒤집힌 성경책이 나오고, 두 여자 주인공의 키스신으로 시작. 뮤직비디오 전반에 걸쳐 여성 간 키스신 및 애정행위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아울러 여주인공 어머니와 한 남자 목사와의 불륜 장면, 그리고 성경책으로 여주인공을 때리면서 "마귀 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동성애에 비판적인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 더해진 스토리. -크리샤 추(Kriesha Chu) <Like Paradise> 두 여성간의 사랑의 감정을 그린 레즈비언 소재 뮤직비디오.</p>
<p>2019</p>	<p>-Holland(홀랜드) <I'm Not Afraid> 남성 간 키스신, 여성 간 키스신 등 동성애자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당당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동성애 소재 뮤직비디오. "두 눈 뜬 채로 안 봐도 돼 괜히 억지로 안 그래도 돼, 매일 흘러 왔던 눈물 매일 그려 왔던 꿈 마구 영켜 있던 끈 매듭을 푸는 건 You, I'm not not afraid anymore (My life)"</p>

2.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대표적 국내 LGBT 가수

데뷔년도	분류	가수명 및 관련 보도자료
2001년	트랜스젠더	- 하리수 (방송인, 가수) 하리수 6년만에 가수로 컴백 소식 (18.07.04. 조이뉴스)
2002년	양성애자	- 황상훈 (그룹 블랙비트 멤버) “나는 양성애자” 커밍아웃 황상훈, 바이섹슈얼이 뭔데? (14.01.08 아주경제)
2005년	트랜스젠더	- 레이디 (트랜스젠더 음악 그룹) 트랜스젠더 그룹 ‘레이디’, 누드 화보집 촬영 (05.05.27 조선일보)
2005년	트랜스젠더	- 류나인 (가수) 트랜스젠더 류나인 ‘댄스가수’에 도전장 (05.07.16 Break News)
2006년	트랜스젠더	- 박유리 (뮤지컬) 트랜스젠더 스타 누가 있나? ③박유리 (10.11.22 중앙일보)
2010년	트랜스젠더	- 이시연 (가수) 윤제균·박준규 “이시연, 그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10.05.06 세계일보)
2013년	무성애자	- 한솔 (그룹 탐독 멤버) 탐독 한솔 ‘에이섹슈얼’ 커밍아웃...”용기 있는 고백..” (17.08.21 아시아경제)
2013년	트랜스젠더	- 차세빈 (뮤지컬) 차세빈 “하리수 백댄서 활동하며 가수의 꿈 키웠죠” (17.08.10 한국경제)
2015년	트랜스젠더	- 최한빛 (배우/모델/가수) 트랜스젠더 모델 최한빛, 더 예뻐졌네... (19.02.25 헤럴드POP)
2018년	동성애자	- 홀랜드 (가수) 대한민국 최초 ‘커밍아웃’ 아이돌, 홀랜드를 아시나요? (18.07.01 오마이뉴스)

IV. 국내 동성애 소재 대중가요(K-Pop)가 갖는 영향력

1. 더 이상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동성애 소재 K-Pop

앞서 보았듯이 국내에도 많은 동성애 소재 대중가요들이 발표된 바 있다. 그중 상당수 곡들은 대중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은 곡들이다. 2015년 장규수, 김태룡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세 이상으로 시청연령이 제한된 선정적인 K-Pop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응답자중 76%로, 사실상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청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76% 중 절반이 넘는 42%가 YouTube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이 같은 선정적 뮤직비디오를 관람하고 있다고 밝혀, 청소년들이 음악을 접하는 가장 주된 경로중 하나가 YouTube임을 알 수 있었다.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Abracadabra〉의 뮤직비디오는 멤버 중 한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남성과 사랑에 빠져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Love'라고 적힌 핑크색 알약을 먹은 뒤 여성과 사랑에 빠져 키스를 하는 양성애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는 YouTube 시청 횟수가 3천4백만 회에 이르며 2010년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다른 곡들도 마찬가지다. 한 여성과 결혼하는 한 남자를 향한 게이 남성의 극단적인 짝사랑을 그린 케이윌(K. will)의 〈이러지마 제발 (Please don't...)〉은 5천1백만 회 이상의 시청 횟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성간의 키스신 및 미신적 주술행위 묘사를 담고 있는 인기그룹 몬스타엑스의 〈걸어(All in)〉의 뮤직비디오는 2천만 회 이상, 그리고 여성간의 직접적인 키스신 및 동성 간 베드신을 연상시키는 여러 비주얼들을 담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걸그룹 레드벨벳의 〈Bad Boy〉의 경우, YouTube 시청 횟수가 무려 2억3백만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횟수가 노래 발매일인 2018년 1월 이후 고작 1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기록 중인 수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청 횟수가 얼마만큼 더 늘어

날지 예측할 순 없지만, 놀랍게도 위 동성애 소재 뮤직비디오들은 모두 '청소년 관람 가능' 등급이며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동성애 소재를 다룬 뮤직비디오 중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곡도 있다. 인기 걸그룹 씨스타(SISTAR)의 〈One More Day〉가 그것인데, 여주인공이 한 남성과 교제 중인 다른 여성을 사랑하게 되어 그 여성을 유혹하고 남자로부터 빼앗는 내용으로, 두 여성이 서로 사랑하게 된 이후 방해가 되는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불태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는 보기 드물게 '19세 이상 관람가'인데, 이제는 흔하게 된 여성 간 키스장면, 수위 높은 스킨십 때문이 아니라, 흥기로 내리쳐 살해하는 장면이나 사체를 불태우는 장면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뮤직비디오는 YouTube 시청 횟수 4백만뷰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K-Pop의 가장 큰 수요층인 청소년들에게 별다른 규제 없이 선정적 콘텐츠들이 제공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의 여학생과 여학생, 남학생과 남학생이 동성 간 교제를 하고, 키스와도 같은 진한 애정표현을 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오히려 이를 부정적 시선으로 보거나 지도하려는 기성세대가 있다면 '그 흔한 뮤직비디오도 보지 못한 시대착오적 구세대'라는 핀잔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청소년 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

고 바람직한 것일까...

2. 세계 속 일부 우려의 목소리, ‘케이팝이 아니라 게이팝’

2019년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홈페이지에 ‘터키 국영언론의 날카로운 비판, K-Pop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라는 전문가 칼럼이 올라왔다. 터키의 여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K-Pop 흥행 때문에 터키 청소년들에게 끼친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학부모와 당국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국영방송을 통해 보도한 것이다. 이 매체는, K-Pop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특히 11-18세 청소년들이 K-Pop 아이돌들의 모든 것을 지나치게 모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가장 크게 증폭되는 우려가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K-Pop 아이돌들의 중성적인 복장, 메이크업, 행동들이 ‘꽃미남’ 신드롬을 넘어 젠더의 중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터키 언론이 K-Pop 그룹들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게재할 때마다 해당 언론인이나 비평가들을 상대로 아이돌 팬들의 조직적인 SNS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터키 국영방송은,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롤모델을 제시하며 수익 창출까지 하고 있는 K-Pop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유아·청소년 심리학자 곽선 카라만(Goksin Karaman) 박사는 터키 언론 A.A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기는 자신의 거의 모든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인데 K-Pop이 성 정체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고, “특히 K-Pop 그룹 멤버들이 자신들의 신체적 특징, 화장, 의상, 액세서리, 행동을 통해 중성성 혹은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는 무성성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기저에 어떤 정치적 동기 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K-Pop 그룹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성 정체성을 하나의 현상으로 수용, 모방하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카라만 박사는 “K-Pop 그룹들이 아직 취약한 청소년들의 도덕·윤리적 가치 공백을 기회로 삼아 종교적 가치마저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심리학자 무스타파 울루소이(Mustafa Ulusoy) 또한 같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K-Pop이 보여주고 있는 ‘중성성’이라는 개념이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진지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가 아닌 동성애 옹호 집단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성 간 결혼 허용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에 이르러 됐다”고 K-Pop의 동성애적 성향을 미국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도 K-Pop의 동성애적 요소를 잘 인지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BTS(방탄소년단) 다수의 멤버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성 20위’ 안에 선정되는 등, 반응의 온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K-Pop이 주는 지나친 ‘탈젠더(어느 쪽의 성별이든 개의치 않는)’ 현상에 대한 조소적인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2016년 미국 내 K-Pop 영향 때문에 ‘게이팝(Gay-Pop)’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 단어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Gaypop is a word used when talking about how gay pop singers act, (K-Pop especially) and is often referring to a group(ex. BTS, EXO, 1D, etc.). Holy shit, they should call it GayPop not K-Pop, cause I dont think ‘normal’ friends casually kiss all the time.” 이라고 그 의미가 검색된다. (출처: Urban Dictionary.com) 이를 우리말로 번역해보자. “게이팝은 게이처럼 행동하는 가수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특히 K-Pop 가수들을 일컫는다. BTS(방탄소년단), 엑소, 1D 등을 주로 참조할 수 있다. 이런 젠장, 게이팝은 사실 게이팝이라고 불러야 해. 왜냐하면 ‘정상적인’ 친구들은 무심코 서로 키스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

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방송 프로그램 ‘파란둘라 40(Farandula 40)’에서 방송진행자 호라시오 비야로보스(Horacio Villalobos)는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출연한 영상을 시청하면서, “해변에서 길을 잃

은 LGBT 모임 같다.”고 조롱했고, 이 방송의 한 출연자는 “빌보드가 아니라 게이 클럽 직원 같다”고 비꼰 바가 있다. 물론, 이 방송진행자는 여론의 반발 때문에 추후 자신의 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렸다. 이렇듯 K-Pop과 동성애적 요소가 연관되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면관계상 K-Pop에 나타난 가사와 뮤직비디오 내용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동성애적 요소의 범위를 ‘의상,’ ‘메이크업,’ ‘안무,’ ‘무대 배경,’ ‘TV 프로그램 출연내용’ 등으로 확대하자면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한국 K-Pop 아이돌들의 윤리,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마약, 도박, 성매매, 성폭행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일부 K-Pop 가수들의 타락함은, 세계 속 한국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한류’는 세계 속 문화흐름의 새로운 지평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K-Pop 한류’가 국위 선양에 이바지 한 바가 매우 크고, 온 국민이 이를 응원하고 있다. ‘문화를 통한 영토 확장’이라는 정부 기조도 있었듯이, 문화강국으로써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우리 예술인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속해야만 한다.